

중동 민주화 운동이 이슬람권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시리아난민 사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바울

1. 서론

2010년 12월 중순 튀니지의 작은 도시에서 야채 행상을 하던 한 청년의 분신이 중동 일대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오게 될지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이듬해 1월 벤알리 대통령을 시작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4명의 장기 독재정권이 물러나게 되었다. 시리아는 극심한 내전의 상태로 치달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순식간에 중동 전체로 들불처럼 퍼져 나가, 강압적 통치를 일삼아 오던 독재 정권들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격변의 시기로 몰아가고 있다.

중동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이러한 상황이 이슬람권 선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떠한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게 되는지, 어떠한 준비가 요구되는지, 이러한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결론이 나오고, 관심 분야에 따라 어떤 면이 부각될 수도 있고, 간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동의 민주화를 칭하는 용어도 각기 다르다.¹⁾ 아랍의 봄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봄이 아니라 아랍의 겨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²⁾ 이 글은 정치제도의 발전과정, 즉 역사적 측면에서 중동의 민주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도외시하지는 않지만, 철저히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관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주권에 따라 세상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중동의 민주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선교적인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앞으로 상론하겠지만 필자는 중동의 민주화 열풍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80년대 중반만 해도 복음의 거대한 장벽이었던 구소련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붕괴되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 견주어 볼 수 있겠다.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격전지이자 사탄의 철옹성 같은 중동 이슬람권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동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치하의 중앙아시아나 동유럽과는 상황이 다르고, 1,400년 동안 유지해 온 종교의 아성을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 사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중동 이슬람권에도 본격적인 복음화와 영적인 추수의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중동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외국 서적들은 "The Arab Spring", "The Arab Awakening" "The Arab Uprising"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 논문들도 "중동 시민혁명", "중동 민주화운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용어를 통일하지 않고 중동의 '민주화 운동', '민주화 혁명', '민주화 시위', '민주화 사태', '민주화 열풍' 등의 표현을 문맥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다.

2) 전호진, 「아랍의 봄, 봄인가 겨울인가」, p.39. "...이슬람의 아랍 국가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고 본다. 만약 이슬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르침과 사상이 있다면 분명 아랍 국가들은 현재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아랍의 봄이 아니라 겨울이다"라고 진단한다.

2. 중동 민주화 운동의 경과, 주요 원인, 전망

1) 중동 민주화 운동의 경과

중동의 국가들은 대부분 19세기 후반이나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하여 군주제나 공화제 형태의 독립국가로 발전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전승국의 위임 통치를 겪었고, '50년대에는 이 지역에도 냉전의 영향을 받은 정치적 격랑이 있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군부 엘리트들에 의해 쿠데타가 빈번히 일어나 왕정이 붕괴되고, 정권 교체의 바람이 중동을 휩쓸었다.³⁾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군부 엘리트들에 의한 정변이었기 때문에, 주로 권력의 상층부만 바뀌었다. 권력을 차지한 세력은 석유자원 확보라는 서구 열강의 이해와 야합하여 개발 이득을 독점하고 장기 독재를 유지해 왔다. 중동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서구 열강은 '딜레마'에 처해 있었고,⁴⁾ 이 지역은 대부분 전제정치 형태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여겨졌다.⁵⁾ 중동 복음화를 위해 이 지역에도 구소련권의 해체와 같은 특별한 섭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⁶⁾宿命론에 젖어 있는 이슬람 사회에서 시민들의 봉기와 혁명이 전개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런데 2010년 12월 18일, 튀니지의 한 소도시에서 야채 행상을 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던 무함마드 부아지지는 청년이 당국의 강압적인 단속과 비인격적인 대우에 항의하여 분신 자살을 시도한다. 그는 벤알리 대통령의 심방을 받고 취업을 보장받고 의료진의 각별한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튀니지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이듬해 1월 벤알리 대통령은 24년 동안 통치하던 권좌에서 물러나 망명을 선언하게 되었다.

튀니지에서의 시민혁명은 위성 뉴스채널과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 중동 전역으로 실시간 중계 되었다. 장기 독재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고 있던 아랍 시민들은 이에 힘을 얻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2월에는 30년 동안 장기 집권해 오던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시민의 저항에

3) 1952년 이집트의 자유장교단 출신 나세르의 파루크 왕을 폐위시키고 아랍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다. 그는 아랍민족주의를 주창하고 1958년 시리아와 통합하여 '동리아랍공화국'을 창설하였는데 아랍민족주의는 아랍사회에 강렬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해 이라크에서도 사회주의 바트당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파이잘 왕정이 붕괴되었다.

4) 중동 민주화의 '딜레마'는 미국이 중동의 독재 정권들에게 민주화를 요구할 경우, 강경한 이슬람세력이 정권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석유에너지 확보와 중동 평화 유지라는 의도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독재정권을 계속 비호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도 이 지역 국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5) 유달승, "아랍세계의 민주화 운동과 중동 정치 지형의 재편" p.251. 그는 아랍의 전제정치 형태를 사막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과 미국의 개입과 지원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그는 아랍 전제정치 형태에 있어서 이슬람 종교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슬람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슬람이 민주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는 Bernard Lewis, Elie Kedourie, Murden 등이 있고, 이슬람과 민주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는 El-Manoufi, M. Steven Fish이 있다. '제2장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정치발전과 이슬람'(정상률, 중동정치 이해 1 레반트 지역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p54-7). 그러나 이슬람이 민주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작용하게 될지는 중동의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 제도 발전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6) 윤바울, "요르단 선교의 현황과 과제", 선교타임즈 2010.4월호, p.70.

굴복하여 물러나게 되었다. 10월에는 리비아에서 42년동안 권력을 휘둘러 온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11월에는 예멘의 살레 대통령이 33년의 통치를 마감하게 되었다. 시리아는 3월에 시위가 시작되어 치열한 내전 상태로 치달고 있으며, 2년 동안 10만에 육박하는 사망자 발생하였고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군경이나 친정부 세력이 시위 현장을 점거하고, 주동자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강력히 진압하였으며, 한편으로 점진적인 민주화 일정을 발표하고, 과감한 복지 혜택을 약속함으로써 시위 확산을 차단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고 있다.⁷⁾

2) 시위 발생의 주요 원인

중동 민주화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치되는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는데, 학자들과 기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전호진 교수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⁸⁾

“첫째, 직접적인 도화선은 인터넷 혹은 SNS다. 이제 어느 정부도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2009년 이란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란내 시위가 영향을 주었다. 셋째, 청년 실업이 특히 큰 원인이 되었다. 아랍의 봄은 청년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넷째, 장기독재와 부정부패 역시 봉기의 원인이다...다섯째, 언론의 자유, 인권 유린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여섯째, 외부로부터 압력이다. 특히 미국은 친미 성향의 아랍국가들 가까이하면서도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중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필자는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서 간과되고 있거나, 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몇 가지 요인을 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적으로 치솟은 물가고와 높은 실업률이다. 세계적인 물가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선진 국가들이 제시하는 적정 원유가격이 배럴당 40달러라고 하는데 2004년부터 원유 가격이 40달러를 초과하여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08년에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였다. 석유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세계 경제는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여파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동 지역 서민들의 삶에 여과없이 반영된다. 산유국들이 유가를 통제하지 않고 상승 혜택을 누린 여파가 중동 전역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야채 행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던 청년이 생계 도구를 빼앗기고 인격적 모욕을 당한 좌절과 분노가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형제와 가족들의 문제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중동에 널리 퍼져 있는 위성 TV방송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이다. 중동 지역은 위성안테나를 사용하여 TV를 시청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수백개의 채널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알자지라(Al Jazeera), 알아라비아(Al Arabiya), BBC아랍어 방송(BBC Arabic) 등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방송사들은 시위 상황과 인터넷 제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SNS에서 오가는 소식도 화면 하단의 Prompt Line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인터넷, 휴대폰 기반의 SNS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연령

7) 바레인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지만, 2011년 3월 사우디로부터 1천명의 병력을 지원받아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요르단 국왕은 선거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 일정을 제시하고, 의회를 해산하였으며, 국왕이 갖고 있었던 총리 임명권과 내각 구성권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넘겨주었다. 걸프국가들은 석유 자원으로 축적된 부를 자국민들에게 분배하는 복지혜택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8) 전호진, 「아랍의 봄, 봄인가, 겨울인가」, p.23-24

층이 제한되고, 정부의 감시와 차단이 가능한 반면, 위성 TV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정보전달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시리아 반군들도 터키에 본부를 두고 위성 채널을 통해 24시간 전투 소식과 항전을 부추기는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셋째, 종교 의식으로서의 금요 기도회와 이를 통한 시위 동원이다. 중동은 금요일이 공휴일이고, 무슬림들은 금요일 오전에 모스크에 나가 기도하고 이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모스크를 나오면서 곧바로 시위대로 전환되어,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집회를 금지하는 강압적인 정권이라 할지라도, 일상화된 종교의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진압과 학대 장면이 위성 TV와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더 많은 참여를 불러 일으켰다. 금요일 기점으로 시위가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고, 정보 당국들은 시위의 발원지가 되는 중요한 모스크의 금요 기도회를 감시하고 이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넷째, 인접국의 시민혁명 성공이 변화에 대한 갈망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중동의 무슬림들은 장기독재와 세습, 지도층의 부패, 물가고, 실업 등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왔지만, 당국은 공권력을 통해 불만을 억누르고 강압적인 통치를 벌여왔다. 시민들은 탄압에 대한 두려움, 이슬람의 운명론과 맞물려 체념해 왔다. 그러다가 튀니지에서 시민 혁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한 아랍 대중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되고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예를 들면, 무슬림형제단을 중심으로 무바라크의 장기 독재에 반대하는 ‘키파야 운동’⁹⁾을 벌여왔던 이집트 대중들은 튀니지의 시민혁명 소식에 자극을 받고, 소강상태에 있던 무바라크 퇴진운동에 다시 불을 붙여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인접국가에서 이룩한 시민혁명이 위성 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었고, 이것이 자극제와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3) 향후 전개방향

중동 민주화 혁명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 군부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군부가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 내전 상태로 치달지 않고 비교적 순조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독재정권이 군부를 계속 통제하고 진압을 펼칠 경우, 리비아와 시리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내전으로 치달게 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다. 한편 순니와 시아의 분포가 민주화 혁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시리아는 시아파(알라위파) 집권층에 다수의 순니파 무슬림들이 반발하여 일어난 사례에 속한다. 바레인은 다수의 시아파 국민이 소수의 순니파 권력층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였지만, 국가규모가 작고, 사우디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아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진압할 수 있었다. 시리아, 이라크, 바레인 등 순니와 시아의 정파 구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은, 크고 작은 테러가 빈발하고 촉발요인이 있으면 언제라도 격렬한 시위로 변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계속 주시해야할 대상은 ‘무슬림형제단’이나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다. 민주화 혁명은 준비과정 없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지만,

9)아랍어 ‘키파야’는 ‘충분하다’는 의미로, 무바라크의 장기독재와 권력 세습 움직임에 반대하여, 그동안 통치해 온 것으로 충분하니 물러나라는 퇴진 운동이다. 무슬림 형제단의 주도로 2005년부터 일어났었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민주화 혁명 이전부터 상당한 조직력을 갖추고 정부에 대항해 왔던 세력이다. 그들은 '이슬람이 해법'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순수했던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며, 중동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이슬람법대로 다스리지 않고 서구와 결탁하여 이권만 챙기는 세속 정권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이들은 당국의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받았지만, 때로는 의회라는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조직력을 갖추어 왔고, 불법화된 지역에서는 지하조직으로 사상을 전파하고 민심을 장악하려고 노력해 왔다. 민주화 혁명으로 공권력이 무너진 틈을 타 버젓이 활동하며 조직을 재건하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 원리주의는 중동 민주화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선거에 의한 대의 정치 등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정교 분리의 세속주의 노선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법에 의한 신정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고,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부패한 독재 권력에서 벗어난 시민들에게 이들의 선명한 구호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를 경험하고, '이슬람이 해법'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한 원인'임을 깨닫고 대안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다.¹⁰⁾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의 무르시가 대권을 잡았는데, 인재를 등용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를 비롯한 세속주의 그룹의 강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들은 무슬림 형제단이 혁명을 공중 납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온건 이슬람당인 엔나흐다(En Nahda) 당이 제1당이 되어 이슬람 정치세력으로 전면에 부상하였고, 리비아에서는 공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원리주의 무장 세력들이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정부 기관을 포위하고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혁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에 대항할 만한 조직력과 정당의 면모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한편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이슬람 진영의 분열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시리아 사태를 계기로 순니와 시아파 양대 진영 사이에 갈등이 노출되고 대분열이 초래되고 있다. 이슬람 역사에서 4대 칼리프 알리 계승권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순니와 시아의 갈등은 그동안 공통의 적에 대항하여 대결보다는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아랍연맹을 결성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순니파와 시아파는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였고, 양대 진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생각된다. 순니파 시리아난민들은 시아파는 무슬림이 아니고 '순니파를 죽이면 천국에 간다'는 교리를 갖고 어린아이들까지 잔인하게 도살하는 이교도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그동안 대이스라엘 항전으로 아랍 대중들에게 영웅시 되었던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

10) 일찍이 1979년 친서구, 세속정권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이란에서는 혁명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대중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통치에 실망과 환멸을 느껴 이슬람에 등을 돌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고를 듣는다. 최근 터키의 탁심 광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시위는 터키 공화국의 창시자 아타 투르크(케말 파샤)가 견지한 정교분리의 세속주의의 버리고 이슬람으로 회귀하려는 에르도안 총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다.

즈볼라는 ‘아사드(바샤르) 정권이 승리하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공개선언을 했다.¹¹⁾ 이에 대응하여 순니파 성직자 유수프 알 카라다위는 헤즈볼라를 ‘사탄의 무리’로 지칭하고 헤즈볼라와 아사드(바샤르) 정권에 대항하는 성전을 촉구하였다.¹²⁾ 시리아 사태의 해법을 놓고 아랍연맹의 지도자들이 수차례 모였지만 정파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란의 핵무장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시아파의 종주권을 주장하는 이란과 순니파의 수장 사우디를 필두로 양 진영의 갈등이 점점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돌발적인 시민혁명에 의해 중동에서의 민주주의 여정은 이제 갓 출발하게 되었는데, 가문과 부족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슬람 정파 분포와 이슬람 원리주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중동의 정치문화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혼란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3. 중동 이슬람권 선교에 미치는 영향

중동 민주화 운동은 이슬람 진영에 변화와 균열을 가져왔고, 새로운 전망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선교에 주는 영향을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단기적으로는 선교사의 안전과 사역에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1) 긍정적 영향

첫째, 안정적이던 이슬람 사회에 균열이 보이고, 구호사역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시위와 내전 상태로 인해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주변 국가로 피난하는 상황에서 구호사역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시리아의 경우,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난민들은 기독교 교회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던 무슬림들에게 아랍어 성경, 전도 책자 등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서 무슬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기회로 생각되는 것이다.

둘째, 혁명을 통해 고양된 시민의식이 결국에는 종교의 자유 등 인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동은 강력한 이슬람 사회로 무슬림들에 대한 포교 자체가 금지되어 왔다. 개종 사실이 드러나면 전도자를 체포하여 추방하고, 개종자는 그 친족들이 명예살인으로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데, 시민의식이 고양되면 사상과 종교는 강요당하거나 간섭받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세속주의 노선에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개종자가 있더라도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자유로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1) “헤즈볼라, 아사드 승리 끝까지 돕겠다” 한국일보 2013.5.25일자

12) “이슬람 성직자, 헤즈볼라-아사드 대항 성전 촉구,” 연합뉴스 2013.6.2.

<http://media.daum.net/foreign/africa/newsview?newsid=20130602172509803>

셋째,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이 이슬람 자체에 대한 회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동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이미지를 선전해왔고,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무슬림이 아니며 자신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왔다. 그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하고, 서로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위성 방송이나 SNS를 통해 많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이슬람이 주장해온 평화 이미지에 오류가 있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슬람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져와, 새로운 진리를 향한 구도의 여정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되고 개방화되면서 아무리 종교성과 부족 전통이 강한 중동이라 할지라도 세속화의 물결을 거부하기는 역부족인데, 갑자기 몰아닥친 민주화 혁명과 갈등은 이슬람 움마 공동체의 급속한 균열과 붕괴를 초래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공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2) 부정적 영향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치안이 무너지고 체제가 불안하게 되면서 선교사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고 사역이 위축된다는 점이다. 이집트에서는 혁명기간 동안 선교사들이 집박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리아는 내전이 격화되면서 선교사들이 급히 철수하게 되었다. 애써 일궈놓은 관계와 사역을 두고 철수할 수밖에 없고,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에게 피랍되거나 순교를 당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체제가 안정되고 치안이 확보되어 문이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또한 혁명의 공과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권력 투쟁이 전개되고, 선명성을 내세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사역 현장에서 민심을 장악하려는 원리주의 세력과 복음을 전파하려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중동 민주화 여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중동 이슬람권도 민주화와 세속화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이 이슬람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원리주의에 대항할 만큼 성장하기까지 험난한 여정도 예상된다. 하지만, 중동 이슬람권에 전대미문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역사의 주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낙관적이라 할 수 있겠다.

4. 시리아 난민 사역의 사례

1) 시리아 사태의 경과와 추이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이 시리아에 신속히 전이되었다. 2011년 3월 남부 다라(Dara)에서 반정부 낙서를 한 어린이들을 정보 당국이 체포하여 손톱을 뽑고 잔인하게 고문한 것을 계기로 분노한 시민들의 의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¹³⁾ 1970년 집권한 아사드

13) 2011년 1월 하산 알리 아클레(Hasan Ali Akleh)의 분신 자살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유나영, “시리아 사태의 동향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2.3.5

하페즈는 알라위파 출신으로 30년동안 통치하다가, 2000년 아들 바샤르에게 권력을 대물림했다. 시아파의 소수 분파인 알라위파(12%)가 지배층을 이루고 국민의 다수는 순니파(75%)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시위가 발발하자 바샤르는 군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벌였고, 이에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무력항쟁에 나섰다. 정부군에서 이탈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자유 시리아군이 결성되어 격렬한 내전의 상태로 빠져 들었다. 정부군이 공군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반군은 지방 도시를 거점으로 강력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

2년에 걸친 내전을 통해 그동안 사망자가 10만명에 육박했고, 국내외에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요르단에는 2013년 6월 현재 약55만명의 난민이 유입되었고, 난민 구호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리아 사태에 대한 지원과 해결을 놓고 국제 사회와 이슬람권이 대결로 치달고 있다. 정부군 지원 세력으로는 러시아,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세력 등이 있고, 반군 지원 세력으로는 터키, 사우디, 카타르, '시리아의 친구들(Friends of Syria)'로 불리는 국가 그룹이 있다. 헤즈볼라가 공식적으로 정부군 지원을 선언한 가운데, 무장 단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지하드 일환으로 내전에 참여하고 있어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¹⁴⁾

내전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 수 있을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순니파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소수 알라위파를 기반으로 하는 바샤르 정권이 통제력을 회복하고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이 없으면 진즉 무너졌을 것이다. 바샤르 정권이 실각하게 되더라도 내전 과정에서 다양한 무장 세력들이 난입해 있고, 실권한 시아파들에 의한 게릴라식 투쟁도 예상되기 때문에 시리아가 안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 시리아 난민 사역의 목적과 방향

시리아 난민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사역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요르단 한인열방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전개했던 시리아난민 사역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리아 난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상처를 싸매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다. 둘째, 난민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구호품을 나눠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해 줌으로써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UN 난민 캠프가 아닌 도시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난민가정들을 대상으로 한다. UN에서 설치한 난민캠프는 주거용 텐트와 생필품, 음식들이 꾸준히 공급되고 사역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임대료와 생활비 등 물질적 필요가 긴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현지교회와 협력함으로써 사역의 안전을 기하고, 현지교회 사역의 장들을 열어준다. 다섯째, 한인 사역자들끼리 사역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14) 요르단의 살라피스트 지도자인 무함마드 살라비(아부 켄에프)는 시리아에서 반군으로 활약중인 요르단 출신 지하드 요원이 500명 이상이며, 지금까지 약 50명이 시리아에서 순교했다'라고 말한다. Jordantimes 2013.5.28., 6면

사역의 효율을 도모하고 중복을 피한다. 여섯째, 시리아인들에게 한국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증대하고자 했다.

3) 시리아 난민 사역의 내용

(1) 초기정착 세트 지원 : 난민들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매트리스, 담요, 돛자리(카펫), 가스레인지, 가스통, 난방용품 등을 일회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역은 가정당 약 300\$의 비용이 소요되고, 운반용 트럭과 다수의 봉사자들이 필요한 사역이다.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른 단체들로부터 중복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한 국제 구호단체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초기정착에 대한 지원은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역이다.

(2) 식료품 패키지 지원 :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약 30\$ 상당의 쌀, 잡곡, 분유, 식용유, 설탕, 캔, 과자 등의 식료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역이다.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그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전도 책자, 아랍어 성경, 복음 제시를 통해 영적인 필요를 공급한다. 부상자, 환자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한다. 한 가정에 약 1시간씩, 하루에 4가정 정도 방문할 수 있다. 이 사역에만 전념할 경우 1주일에 15가정, 한 달에 60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재방문하는 가정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한 팀이 약 40가정을 케어할 수 있다.

(3) 의료 및 육아 지원 : 가정 방문을 통해 파악된 가족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약품, 유아용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한다. 차량이 없는 여성사역자들이 주로 이 사역을 전담하면서 난민 여성들을 방문하고 영적인 케어까지 전담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영수증을 토대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금 지원을 삼가고, 물품을 직접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모색하였다.

(4) 학습용 패키지 지원 : 내전으로 인해 2년 이상 교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난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장소를 임대하여 유치원이나 방과후 학습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임대료, 인허가 문제, 비품, 헌신된 교사, 커리큘럼 등 준비할 것이 많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묶이게 되면 방문과 전도사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다. 결국 학습지 방문교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었다. 학습용 패키지를 만들어 취학연령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방문하여 진도관리를 해주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약 20\$이 소요되는 학습용 패키지 안에는 아랍어 교재, 영어 교재, 수학 교재, 크레파스, 스케치북, 노트, 필기구, 동화책 등이 들어있다.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난민들의 마음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고, 시리아의 미래 세대를 위한 훌륭한 사역이 되고 있다.

(5) 일일 성경학교 : 방문사역에서 만난 어린이들을 현지교회로 초청하여, 현지교회 청년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게임, 찬양, 율동, 드라마,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순서를 갖는다. 식사를 제공하고 모임 끝에는 옷이나 학용품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잠시나마 전쟁의 상처와 근심을 잊고 웃을 수 있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별도로 갖고 가정사역, 자녀양육에 대한 강좌, 예

수 영화, 한국의 발전상과 같은 영상물을 시청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시리아 난민 사역의 결과

(1) 무슬림 전도의 Know-how 축적

사역 초기에는 불쌍한 난민들을 돕겠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호사역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UN, NGO, 카톨릭 단체, 이슬람 단체들까지 구호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단순히 구호사역에 그친다면 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기회로 생각되었고, 이 기회를 활용해야 부담감이 있었다.

처음에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망설여지고, 담대함이 부족했던 것 같다.¹⁵⁾ 그러나 동일한 가정, 동일한 지역을 계속 방문하면서 친근감과 담대함이 생겼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구호보다는 전도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현장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리아난민 사역 경험을 통해 얻은 무슬림 전도의 Know-how를 몇 가지로 언급하고자 한다.

① 사역팀 구성 : 중동의 문화와 정서상, 남성이 무슬림 여성만 있는 집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 팀을 남녀 혼성으로 하는 것이 좋다. 방문 팀 인원이 너무 많으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노출되고,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상대를 의식하게 되고 강압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전도를 우선으로 할 경우에는 팀원의 수를 2명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현지인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는 경우, 집을 찾아 가기가 수월하고, 부족한 아랍어를 보충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해주는 이점이 있다. 그들로서는 무슬림을 향한 선교사들의 열정과 사역의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다. 아랍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랍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사랑과 섬기려는 열정이 있다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마음이 전달될 것이다.

② 방문대상 선정 및 유의점 : 과부, 아이 많은 가정, 전쟁 부상자, 고문당한 사람 등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인 방문대상으로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게 되면 복음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집 근처에 도착해서 방문 사실을 알린다. 이웃이나 친척이 몰려들면 복음 제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대화의 주제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서 마무리한다. 한 팀이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가정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구호 요청이 쏟아져 들어와도 인원을 제한한다. 방문 리스트를 만들어 가족 이름, 자녀들의 나이, 삶의 형편, 방문 일자, 전달 품목 등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둔다.

③ 접촉점 : 한인 공동체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15) 필자는 미-이라크 전쟁으로 요르단에 유입된 수많은 이라크 난민들을 대상으로 구호 사역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때 접촉했던 난민들은 주로 구교 배경의 기독교인들과 세례(침례) 요청을 추종하는 싸비아 배경이었고, 무슬림 배경의 난민들은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요즘 요르단에 유입되고 있는 시리아난민들은 거의가 순니파 무슬림들이다.

밝힌다. 한국도 내전을 겪어 2백만 이상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말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리아도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국가를 다시 이룰 것을 소망한다고 말한다. 가족들의 상황과 형편을 묻고, 고민과 아픔을 충분히 듣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고난 뒤에는 축복이 감추어져 있음을 말한다. 복음을 제시하기 전 그들의 사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여건이 되면 아랍어 성경을 꺼내어 구절을 함께 읽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④ 전도 방법 :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나누고 공감한 후에, 인간에게는 물질과 육체도 중요하지만, 정신과 영적인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전도 소책자를 영적인 선물로 소개하고 건네준다.¹⁶⁾ 전도 책자용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글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이 개방되어 있는지를 탐색한다. '인질'의 의미(유앙겔리온-기쁜 소식)에 대해 설명하고 기쁜 소식을 들어보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한다. 답변을 기다리며, 복음전도용 큐브를 꺼내 4영리, 전도폭발, 생명의 다리 등 기존의 복음전도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복음의 핵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한다.¹⁷⁾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나, 마리아의 아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류의 구세주, 주님이심을 강조하여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고 즉석에서 결단을 요구하거나 영접 초청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맡기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 아랍어 성경을 전달하고, 치유기도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영접 초청을 하기도 한다.

⑤ 보안과 기도 : 난민 구호사역이라 하더라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 다른 난민사역 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당국의 동향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이웃이나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인도주의 차원의 구호사역 모드로 전환한다. 새로운 난민들의 방문요청에 응하기보다 기존 리스트에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방문 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감시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면, 사역을 잠시 중단하거나, 지역을 옮겨가며 사역한다. 또한 복음 전도는 치열한 영적전투인 만큼 강력한 중보기도와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2) 난민 사역의 영적인 열매들

필자가 난민 사역을 시작한 2012.8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400회 이상 가정방문을 하며, 아랍어 신약성경 약 300여권, 전도책자 400여권을 배부하였다. 이 가운데 100회 이상의 복음 제시가 있었다. 100 가정을 접촉하였을 때, 이 가운데 2-3가정이 영접과 같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은 주로 과거에 기독교에 대한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16) 사용하는 전도 책자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일부만 발췌하여 만든 소책자이다. 요르단 현지교회에서 얻어 사용할 수 있고, 내용이 영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좋다.

17) 낙타 전도법 등 코란을 이용한 전도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전도방법들을 종합하여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중동의 속담("피 이외에는 수치를 씻을 수 없다")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고, 코란이 잘못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하였다.

8-10 가정은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여건만 허락되면 믿음을 유지할 사람들로 보인다. 환자나 고문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 치유와 성령을 체험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지교회와 협력하여 일일 성경학교를 3회 개최하였는데, 매회 180여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60여명 이상의 성인들이 참석하였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복음 제시를 듣고 나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고맙다고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스크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기독교 방송 채널을 보면서 현지교회에 나간다는 사례도 있다. 영접 초청을 했을 때,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믿겠다는 고백과 영접 기도를 하고도 다음에 방문해 보면 상황이 오히려 후퇴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복음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하는데서 그치고, 즉석에서 결단이나 영접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문맹인 사람에게는 아랍어성경 mp3를 전해 주고, 「목적이 이끄는 삶」 전체를 읽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책을 선물하였다. 복음에 대해 적극 반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경공부와 예배 모임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직은 한계와 역부족이었다. 한 가정이 복음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의 주변 친인척들로부터의 견제가 있고, 사탄의 영적인 방해도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공동체성이 강하고 핍박이 여전한 중동에서 난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한두번 듣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로부터 돌아선다거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수고에 비해서 가시적인 열매가 아직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날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 사역이나 마찬가지로, 난민구호 및 복음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적인 지원과 사역자들의 인내와 수고,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며, 보람 있는 사역임에 틀림없다.

5. 선교적 대응 및 결론

중동 이슬람권은 세계 복음화 여정에 있어서 사탄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어 왔다. 기독교의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이슬람 체제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만큼 사탄이 구축해 놓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시민 혁명이라는 이슬람 역사상 유례없는 격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중동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공고했던 이슬람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이제는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생기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걸음씩 내딛어야 하겠지만, 균열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결국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시리아 사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치열한 내전 때문에 즐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의 처지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들은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국가나 개인으로는 엄청난 비극과 재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혁명을 겪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의 국가는 잦은 소요와 불안으로 사람들이 물질적,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 긴급 구호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중동 이슬람권 선교 기금’ 등을 모금하여 긴급 구호자금을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중동 이슬람권은 종교와 언어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일찍부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작금의 민주화가 세속화와 자유화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더구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의 조정 국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온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교회가 중동 이슬람권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인적 자원과 물질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게 된다면, 이곳에서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의 마지막 보루였던 중동 이슬람권이 무너지고 있다. 광야 같던 복음의 황무지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2천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수축하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할 자 누구인가?

<참고 자료>

- 장훈태. 「최근 이슬람의 상황과 선교의 이슈」. 서울: 대서출판사, 2011.
- 전호진 외, 「아랍의 봄, 봄인가 겨울인가」. 서울: 종교문화연구소, 2013.
-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 「중동정치 이해1-레반트 지역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파주: 한울, 2004.
- 「중동정치 이해2-아라비아 반도와 이란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파주: 한울, 2005.
- 「중동정치 이해3-북아프리카와 터키지역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파주: 한울, 2006.
- Lynch, Marc. 「The Arab Uprising」. New York: PublicAffairs, 2012.
- 박경남. “향후 북아프리카/중동 선교 전략과 주의점.” 「KMQ」, 2011 가을, p.16-23.
- 박현도. “시리아 내전의 원인과 전망.” 「시대정신」, 2012년 가을호.
- 서동찬. “중동-북아프리카 시민 혁명과 향후 전망: 국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KMQ」, 2011 가을, p.24-33.
- 서정민. “중동 민주화 과정의 성격과 파급효과.” 39차 유라시아협의회 자료. <http://www.eurasiahub.org/data/ftproof>.
- 유나영. “시리아 사태의 동향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2.3.5. <http://keri.koreaexim.go.kr>.
- 유달승. “아랍세계의 민주화 운동과 중동 정치지형의 재편.” 「사람과 정책」, 2011년 창간호, p.248-52.
- 윤바울. “요르단 선교의 현황과 과제.” 「선교타임즈」, 2010년 4월, p.60-70.
- 이권형·박재은. “시리아 유혈사태의 장기화: 배경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역경

제 포커스」, Vol.6(2012. 6. 20)

인남식. “최근 시리아 사태의 동향과 역학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No.2012-07, 국제외교
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 4. 6.

인남식.고영환.고경민. “중동 시민혁명과 북한 민주화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자료,
2011.3.14.

정상률. “중동이슬람 지역의 시민 민주화 혁명과 중동 정세 전망.” 「정세와 정책」, 2011년 3
월호. p.17-19.

“이슬람 성직자, 헤즈볼라-아사드 대항 성전 촉구.” 연합뉴스, 2013.6.2일자.

“헤즈볼라, 아사드 승리 끝까지 돕겠다.” 한국일보, 2013.5.25일자.

“Jihadists jailed for trying to enter Syria,” Jordantimes 2013.5.28., 6면